

책장 넘기는 설렘+스크린으로 만나는 감동

광주지역 소설·영화 감상 동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무소영’
내년 프로그램 공개...회원 모집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원작으로 한 영화.

원작소설을 읽고 그 원작을 영화화한 영화를 감상한 후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된다

영화칼럼니스트 조대영이 진행하는 두 개의 소설 영화동아리가 2018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두 동아리는 원작소설을 2주간에 걸쳐 먼저 읽고 모임 당일에 영화를 감상한 후 소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다.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청저미디어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회원들이 선정한 소설과 영화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1월10일부터 6월27일까지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등의 고전은 물론 '애검은 들리지 않는다', '처녀들, 자살하다' 등 현대 소설까지 만나볼 수 있다.

1월10일 상반기 첫 자리에서는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살펴본다.

이밖에 눈에 띄는 작품은 1782년에 발표돼 그동안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진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다. 이 고전은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이 동명의 영화제목으로 만들기도 했고 밀로스 포먼 감독은 '발몽'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이 중 글렌 클로즈, 존 말코비치,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위험한 관계'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눈다.

또 '소피의 선택'도 만난다. 윌리엄 스타이러인이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인종 대학살 등을 치열하게 연구한 끝에 발표한 '소피의 선택'은 작가에게 풀리처상을 안겨 주었으며, 매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다.

6월27일 마지막 자리에서는 2017년 칸영화제



독상을 수상한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소설 '처녀들, 자살하다'를 각색해서 만든 '처녀 자살소동'은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데뷔작이다.

무등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무소영'(1월15일~6월18일) 격주 월요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프로그램은 중단편소설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동서양을 두루 아우르는 유명작가들의 소설들과 명감독들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영화들로 채워졌다.

'무소영'의 2018년의 첫 시작은 1월15일 미야모토 테루가 쓴 '휴탕물 강'을 영화로 만든 오구리 고

헤이 감독의 '진흙 강'이 열개 된다. 미야모토 테루는 20세기 후반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뽐내는 작가다.

로랑 캉테 감독이 영화로 만든 '남쪽을 향하여'는 메디지상을 수상한 아이티의 작가 다니 라페리에르의 소설 '남쪽으로'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낙원 같은 해변과 곱담한 빈민가가 공존하는 카리브 해의 섬나라 아이티를 배경으로 억눌린 욕망의 출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단편 소설의 거장인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을 묶어 영화로 만든 '숯김'은 3월5일 만나본다. 아홉 쌍의 부부를 등장시켜 미국 중산층의 허약한 내면을 날카롭게 폭로한 작품으로 로버트 알트만 감독에게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안겨주었다.

이밖에도 '무소영'에서는 이정준, 알베르 카뮈, 서머셋 모음, 에네스트 헤밍웨이, 무라카미 하루키 등 세계문학의 거장들이 발표한 중단편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현재 두 동아리 모두 상반기 회원을 모집 중이다. 문의 062-613-7752, 010-4660-579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올해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은?

인터파크 '문재인의 운명'
예스24 '82년생 김지영'
인터넷교보 '오직 두 사람'



올해는 어떤 책들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넷 서점들이 진행한 독자 투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이 인터파크에서도 '2017 최고의 책' 독자 투표에서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7일까지 웹·모바일을 통해 독자 투표(20만9354명)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은 21%로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의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한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섬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특히 30~40대 독자층에서 과반수가 넘는 64%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투표 초반부터 최종까지 굳건히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tvN '알쓸신잡' 방송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시민 작가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가 13%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진행한 '올해의 책' 독자 투표에서 19.1%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분 여성주의 출판 열풍이 올해까지 이어져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82년생 김지영'은 1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의 고른 지지를 받아 일련의 페미니즘 흐름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것으로 분석됐다. 책은 여성들의 일상 속 좌절과 고통을 사실적이면서 공감대 높은 스토리로 표현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이 따랐다.

2위는 14.9%를 획득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가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묻는다',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3, 4위에 올랐다.

인터넷교보문고도 실시한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한국소설에는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이 뽑혔다. 교보문고는 한국소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출간)을 대상으로 전국 서점 직역으로부터 1인당 5권씩 추천을 받았으며, 여기서 집계된 상위 20권을 대상으로 온라인 독자 투표를 벌였다.

'오직 두 사람'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7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 소설집으로 전체 응답자 중 18.9%가 선택했다. 이어 김해진 작가의 소설 '말에 대하여'가 2위,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바깥은 여름'이 3위를 차지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음악극 '부용산' 연습 모습.

무대 오르는 시 '부용산' 내일 별교 채동선음악당

별교 출신 박기동 시인의 시 '부용산'이 창작 음악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사)한국예총보성지회(지회장 이창수)는 27일 오후 3시 별교 채동선음악당에서 창작음악극 '부용산'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7명의 배우와 연주자 5명이 공연에 참여하며 연출 조재현, 음악감독 이지영, 대본 양수근, 작사 이창수, 곡 구주원 씨가 각각 맡았다.

극의 시대 배경은 1948년 보성 별교와 목포 여중이다.

노래 '부용산'은 별교 출신 박기동 시인이 요절한 여동생을 부용산에 묻고 그 슬픔을 시로

표현 것이다. 이후 목포여중 근무시절에 만난 음악교사이자 작곡가인 안성현이 곡을 붙이면 시 탄생했다.

'부용산'에 들어갈 음악의 편곡과 곡은 서울대 음대 출신이자 첼리스트인 이지영 음악감독 주도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구주원 씨가 맡았다.

이창수 예총보성지회장은 "오래 전부터 '부용산'을 토대로 '한국형 레미제라블'을 만들고 싶었다"며 "시대의 상흔을 간직한 별교를 남과 북이 화해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구심점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들 "폴리 투어 다녀왔어요"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들이 광주폴리 투어를 가졌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제3기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대상으로 22일 광주폴리3투어를 진행했다.

<사진>

제3기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15명은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뷰(View)폴리, GD(Gwangju Dutch)폴리, 쿡(Cook)폴리, 현상공모 당선작인 뽀뽀(FunPun)폴리, 미니(Mini)폴리 등 5개 유형의 11개 작품으로 구성된 광주폴리3투어에서 뷰폴리, GD폴리 아이리브 스트리트, GD폴리 곰 집, 쿡폴리 콩집, 쿡폴리 청미장 순으로 감상했다.

서포터즈들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설치된 '뷰폴리 설치작품 자율건축'에서 광주시내의 전경을



바리봤으며, 쿡폴리에서 내년 2월에 열린 광주비엔날레 UCC 발표회를 위한 제작 회의를 가졌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선발된 20

여 명의 온라인 서포터즈들은 지난 16일 발대식 이후 다양한 SNS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